

대한민국 최초 순수무협극

<생이 死를 지배할 때>

작|연출 박웅

무협이라는 장르 속 인물들은 협(俠)과 의(義)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위해 죽음을 기꺼이 내어 놓는다. 어찌면 이렇게 生의 이데아가 死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비루한 현실도 지켜온 반복을 멈추고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작품설명

무협의 세계로 풀어내는 현실

무협의 세계는 일견, 허황된 판타지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온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것만도 아니다. 끊이지 않는 다투고 갈등,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온전히 차지하는 약육강식의 논리는 우리네 삶에서 쉬이 볼 수 있는 비정함이다.

연극으로 풀어내는 무협

언어와 행위를 다루는 예술로서 연극이 가지는 고유의 매력이자 장점은 현장성이다. 영사기에 갇혀 스크린에 쏟아지는 웰메이드 액션이 아니라 눈앞에서 실제로 검이 부딪히고 무대 위로 진한 피가 뿌려지는 생동한 무협의 현장을 소개한다.

시놉시스

무림을 피로 물들였던 1차 정사대전. 아수라장의 복판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정파와 사파의 혈투를 멈추어 세운 이는 대범천왕 위진악이었다. 마침내 위진악이 대혈전을 끝내고 무림맹을 세웠을 때 그 깃발엔 평화의 월계 잎과 혈루풍십자를 담았으니, 적과 청의 십자는 멈추어야 할 피와 눈물을, 사방의 흥·은·백·자·금강석은 아미사선의 의기를 뜻하였다.

천하제일인 위진악과 아미일선 홍아라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자 무림은 다시 핏빛 기운에 휩싸이게 되고, 재차 발발한 정사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파 무림 최전선에 위치하던 수라문은 정파의 협공을 받아 사라져 버렸으며 청성파 역시 사파의 대공습으로 멸문 직전에 이른다.

그리고 어언 17년이 흘러 그간 화산과 무당, 소림 등 정파들은 무림맹 재건과 정파 중심의 무림 통일을 도모하였고 사파에서는 한빙동의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한편, 보타산 중턱에는 천교라 하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생겨났는데 그 교문이 이려하였다. ‘生이 死를 지배하며 死가 生을 불허할 때 생사(生死)의 부(賦)를 전 것은 하늘이니 모든 것은 하늘로 돌아가리라...’

기획의도

객석에 앉아 무대 위 판타지를 지켜봄과 유사하게 우리들이 멀찍이 바라보는 현실이 있다.

전쟁이 옳지 않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평화는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이다. “다름”을 해결하는 방식에 폭력이 끼어들게 되면 그건 또 다른 폭력을 낳아 무수한 반복만이 이루어질 뿐이다. 적어도 분쟁의 본질이 “다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이라는 건 다를 “뻔”이라는 것. 그럼에도 스스로 반복하고 있는 이 “다름”의 역사가 충분히 공포라는 것. 이만은 분명하다.

작·연출 박웅

주요작품

작/연출 <치킨게임 Episode.2 - Mers사태 천재인가 인재인가?>
<치킨게임 Episode.1 - 국정원 개혁논란 출구는 어디인가?>
작/기획 <죄수의 딜레마 Episode.2 - 남대문 방화 case>
<죄수의 딜레마 Episode.1 - 미술품 경매 case>

수상

2015 목포문학상 남도작가상 희곡부문 <어느 제육주의자의 레시피>
2014 두산 빅보이 어워드 선정 <치킨게임>
2014 연세문화상 오화섭희곡상 <공저>
2011 평화신문 신춘문예 창작동극부문 가작 <파랑곰의 소원>

공연정보

공연일시 1.14(목)-17(일)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5:00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공연시간 120분
관람등급 만13세 이상
티켓가격 30,000원
공연문의 Play for Life *****

출연

박문지 <피의 결혼>, <혈맥>,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일들> 외
김수안 <셸 위 키스>, <예쁘고 외로운 여자와 밤을>, <안톤 체홉의 '공포'> 외
정새별 <외계인들>, <오해>,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외
염문경 <옥상 위 카우보이>, <년센스>, <열녀춘향> 외
이다정 <방황하는 별들>, <그리스>, <그림자사랑> 외
김시아 <짜사랑>, <스캔들> 외
권형준 <에쿠우스>, <고곤에 선물>, <그놈을 잡아라> 외
박창순 <치킨게임>, <엔론>, <해피투게더> 외
조정문 <치킨게임>, <베네수엘라>, <체홉적 상상 갈매기 5막 1장> 외
류혜영 <치킨게임>
임주환 <초대>, <피가 말라도 파이팅>, <돈키호테남극빙하>

스텝

무대 김다정, 조명 노명준, 분장 장경숙, 의상 김미나, 사운드 목소,
영상 김성환, 움직임 이진욱, 사진·그래픽 안수민, 조연출 박진아, 기획 나희경

#이게 #새삼스러운 #일인가

<#검색하지마>

작|연출 정주영

여교사와 남학생이 서로에게 흥미를 느끼는, 늘 있어왔던 이야기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화되어 있는 SNS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교사는 SNS를 통해 자신을 게시하고, 학생은 주목한다. SNS를 통해 표현된 인물의 욕망이 교무실이라는 제도적 공간 안에서 표출될 때의 긴장감은 배가 된다. 동시에 SNS 형태로 구조화된 욕망을 이야기한다.

작품설명

‘훑쳐보기’와 ‘보여주기’ 그리고 ‘바라보기’의 세상.

온라인이라는 세상, 누군가는 누군가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고 그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 누군가는 자기를 잘 숨겨 놓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게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나를, 그 ‘누군가’를 노출한다.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시놉시스

고등학교 여자 수학 선생님 나라와 17세 남학생 수영이 있다. 이 둘은 같은 학교 건물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지만 서로 만날 일은 없다. 수학 선생님은 남학생 반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과 후 교무실, 나라가 혼자 남아서 일을 한다. 수영이 담임교사를 만나러 교무실에 온다. 수영의 담임교사는 이미 퇴근했고, 나라와 수영이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수영은 의도적으로 나라의 관심을 끌려고 애쓴다. 나라는 수영의 지나친 행동에 불쾌해질 때쯤 수영이 자신의 속내를 고백하는 것 같다. 나라는 선생님으로서 수영의 문제에 다가가려고 하고, 수영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 수영이 나라의 관심을 알아차리는 순간, 수영은 나라의 블로그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놓는다.

기획의도

디지털 매체시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것은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시키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좋아요’를 갈망하고 서로를 주목해준다.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의 나를 게시하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반영된 타인의 이미지를 경험한다.

온라인 이미지로 선 경험된 타인을 오프라인에서 대면한다, 대화를 나눈다, 시간을 공유하고, 즐거움이 발생한다, 미묘한 욕망이 생겨난다, 그런데 디지털 매체를 경유하는 이 욕망은 어떠한 모습인가?

작·연출 정주영

작/연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겨울야합 <검색하지마>

작 CJ크리에이티브 마인즈 연극 선정작 <미자에게는 미심쩍은 미소년이 있다>

공연정보

공연일시 1.21(목)-24(일)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5:00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공연시간 60분

관람등급 만15세 이상

티켓가격 30,000원

공연문의 02-714-2341

출연

정연 <머더 발라드>, <유도소년> 외

이서준 <공중의 방>, <stn. 2와 1/2> 외

스텝

무대감독 권세미, 무대 오태훈, 조명 이재복, 조연출 이해인, 드라마터그 유혜영, 기획 김민솔

미안하다, 기춘아, 지켜주지 못해서 <안녕, 파이어맨 - 강기춘은 누구인가> 작|연출 박정규

<안녕, 파이어맨-강기춘은 누구인가>는 '안녕 파이어맨'이라는 대제목 아래 3개의 연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이다. 강기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소방관들이 처한 현실을 말하고자 한다. 많은 분들이 그들의 고충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주목했으면 한다. 지금 우리는, 서로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작품설명

우리는 무관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부조리한 일을 보아도 그 순간에만 안타까워하거나 분노할 뿐. 망각한다. 또 잊고 하루를 살아간다.

소방관 순직률보다 자살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낡은 방화복, 오래된 소방 장비들. 그들은 슈퍼맨이 아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이 그렇듯, 두려워한다. 단지 인내하고 참아낼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뿐 그 이상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강기춘이라는 소방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저들의 현실. 지금, 저들에게는 관심이 필요하다.

시놉시스

소방사 강기춘은 동물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이다. 하지만 순직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그 이면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와 소방관들의 직업적 고충이 존재한다. 소방사 강기춘의 죽음을 둘러싼 동료들의 증언과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후배들... 결국 보다 못한 강기춘은 영혼이 되어 소방서를 찾아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강기춘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태로 펼쳐진다.

기획의도

소방관들의 고충을 세상에 알리자. 무겁거나 어둡지 않은 분위기로.

우리는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불친절한 시대에 살고 있다. 웃음과 감동으로 이 팍팍한 시대에 그들의 고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작·연출 박정규

주요작품

작/연출 <안녕, 파이어맨-누구나 고충은 있다>, <안녕, 사서들>, <소방직할파출소>, <서태지가 되어라> 외
연출 <늘근도둑이야기>

수상

2015 케이아트플랫폼&페스티벌 선정 <서태지가 되어라>

2014 신작희곡 페스티벌 수상 <안녕, 파이어맨-강기춘은 누구인가>

공연정보

공연일시 1.28(목)-31(일)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5:00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공연시간 90분

관람등급 만7세 이상

티켓가격 30,000원

공연문의 02-762-0010

출연

오민석 <맘모스해동>, <지상최후의 농담>,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외
박종희 <사람의 아들>, <나도 전설이다>, <딸들 자유연애를 구가하다> 외
조현철 <실수로 죽은 사내>, <지켜보고 있다>, <코끼리에 관한 오해> 외
한기장 <개구리>, <브레인컨트롤>, <아폴로프로젝트> 외
김소정 <달빛요정과 소녀>

스텝

조연출·무대감독 김상엽, 그래픽 노효경, 무대 최광순, 조명 이수연, 기획 김주희

공연예매 공연예술센터(www.koreapac.kr),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

티켓가격 전석 3만원

할인정보

할인명		금액	할인율	내용
3개 작품 공통	공연예술센터 회원	24,000원	20%	공연예술센터 회원
	공연예술센터 매니아	21,000원	30%	공연예술센터 회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15,000원	50%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지참
	문화패스	15,000원	50%	만13~24세 이하 청소년
	예술인할인	10,000원	정액	예술인패스 지참
	공연예술 관련학과 전공자	10,000원	정액	학생증 지참
	단체 할인	12,000원	60%	10인 이상
생이 사를 지배할 때	파랑곰 매니아	18,000원	40%	극단 파랑곰 이전 공연 티켓 소지자
	정치외교학 전공자	12,000원	60%	학생증 지참
	무협지 소지자	18,000원	40%	무협지 지참
	TOPING 할인	21,000원	30%	인터파크 유료회원
#검색하지마	수학교사	21,000원	30%	교원자격증 지참
	수능 응시자	15,000원	50%	수능 수험표 지참
안녕, 파이어맨	늘근도독이야기 관람자	18,000원	40%	2015년 관람티켓 소지자
	소방공무원	21,000원	30%	공무원증 지참
	문화가 있는 주간	15,000원	50%	매회 10석